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 성 혜* · 김 초 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 론	III. 결과 및 고찰
II. 연구방법	I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족을 혈연과 결혼, 그리고 양자를 통해서 결합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결혼이란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과 관습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¹.

따라서 결혼과 가족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두 현상은 어떤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².

사회가 점차로 발전하고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도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단산현상이 가족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고³, 더 나아가 근대과학 및 의학의 발달 그리고 육아환경의 개선 등은 급격한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와 높은 인구증가 현상을 야기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초 국민 개인 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한 빈곤상태에서도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이 6.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⁴.

따라서 경제개발과 더불어 인구정책이 주요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인구조절정책의 하나로 실시된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1984년⁵에는 합계출산률이 대체수준인 2.1로 그리고 1990년⁶에는 1.6으로 감소된 경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사업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자녀 가치관의 형성⁷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출산은 여성 생리상 가임기간 중의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행위로서 유배우 가임연령 여성은 곧 출산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 및 교육 혜택과 고용기회의 확대 등도 결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초혼의 만혼화와 빠른 출산템포 및 이른 단산연령 등이 소산의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하며, 결혼관⁸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는 의식적으로 출산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며, 합리적인 인구조절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⁹. 따라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인간의 복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라 사료된다.

현대사회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본다면 결혼을 통한 가족은 가장 원초적이고 결속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및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출산력과 결혼관련변수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연구하여 향후 출산정책의 자료로 제공코저 시도되었다.

2. 용어의 정의

가. 출산력(Fertility)

출산력이란 개인이나 사회적인 인구집단의 출생빈도를 말한다. 즉, 한 인구의 발생가능한 출산수의 수준이며, 이 때의 “발생가능한”의 술어는 생물학적인 발생능력과 실제로 발생한 현상의 두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출산력 측정에는 이 두가지 뜻을 분리하여 측정한다. 인구의 생물학적인 기능은 15세부터 49세까지 여자의 임신력을 뜻하나 실제 여자의 생물학적 능력으로서의 출산력을 측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것을 제외하여 발생한 현 출산수를 출산력으로 사용하였으며, 한 인구의 출산력은 정상출산아의 발생빈도수에 의해 평가된다.

나. 일반출산률(General Fertility Rate)

일반출산률은 가임연령층 부인 1000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다.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

부부 한쌍이 일생동안 출산하게 되는 출생자녀수를 의미하며, 해당년도 1년동안 각 연령이 나타낸 연령층 출산률의 합계, 혹은 연령별 출산률이 5세간격으로 측정된 경우 5세간격의 각 연령집단에 나타나는 연령별 출산률에 5를 곱한 수치의 합계를 구한 것이다.

라.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대체수준이란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의 개념만을 도입한 현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수준 즉, 유배우가임여성 한 명이 2명씩만 출산할 경우 일정한(60~65년) 후 인구의 성장이 정지상태에 이르는 출산수준을 뜻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가족기능연구를 위해 1989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표본 조사구로 설정한 전국 75개 지역의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해서 얻은 자료이다.

본 연구자는 이 중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관련 문항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만 15세이상의 기혼부인 2824명이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대도시 거주부인이 1293명으로 45.8%,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697명(24.0%) 및 852명(30.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15~29세가 594명으로 전체의 21.1%이었고, 30~39세는 794명으로 전체의 28%, 40~49세와 50세 이상이 각각 587명, 849명으로 20.8%, 30.1%를 나타냈다. 응답부인 수가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50세 이상이었고 30~39세, 15~29세, 40~49세 순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 연령분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30~39세의 연령집단 부인수가 각각 33.9%, 30.1%로 가장 많은 반면, 농촌은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45.4%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본 응답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전국으로는 2.8명이었고,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2.3명, 중소도시 2.7명, 농촌 3.7명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남아수는 전국적으로 1.5명으로, 지역별로는 대도시 1.2명, 중소도시 1.4명, 농촌 1.9명의 순이었고, 평균 여아수는 전국적으로 1.4명으로, 지역별로는 대도시 1.1명, 중소도시 1.3명, 농촌 1.8명이었다.

2. 분석모형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관련요인은 제도적, 구조적 및 문화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보아야 하나 분석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교육수준, 결혼결정, 결혼후 최장 거주지, 부인의 취업유무, 경제수준)과 인구학적 요인(초혼연령, 연령차이, 형제순위, 가족형태, 시부모와 동거여부)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출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 자료처리기간 및 분석방법

본 자료는 1991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처리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였다.

표 1. 응답부인의 지역 및 연령별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수 : % (N)

전 체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촌
연령분포	100.0(2,824)	100.0(1,293)	100.0(679)	100.0(852)
15~29	21.1(594)	24.2(313)	21.5(146)	15.9(135)
30~39	28.0(794)	33.9(438)	30.1(204)	17.8(151)
40~49	20.8(587)	20.2(261)	21.7(147)	21.0(178)
50+	30.1(849)	21.7(281)	26.7(181)	45.4(387)
평균(세)	42.5	39.6	41.9	47.3
현존자녀수				
평균(명)	2.8	2.3	2.7	3.7
현존남아수				
평균(명)	1.5	1.2	1.4	1.9
현존여아수				
평균(명)	1.4	1.1	1.3	1.8

Ⅲ. 결과 및 고찰

1. 응답부인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특성

연구대상자인 부인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특성은 표 2와 같다.

부인의 교육정도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졸(28.4%) 및 중졸(20.5%)이었고 국졸미만인 부인이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고졸이상 43.4%, 중졸 24.7%, 국졸 22.7%, 국졸미만 9.2% 순이었고, 중소도시는 고졸이상 33.2%, 국졸 27.2%, 중졸 21.8%, 국졸미만 1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은 국졸 38.0%, 국졸미만 34.0%, 고졸이상 14.7%, 중졸 13.3%의 순을 보였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43.4%, 33.2%), 농촌지역은 국졸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0%). 또한 부인의 평균 교육정도는 9.3년으로, 대도시 10년, 중소도시 9.3년, 농촌이 7.8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결혼절정 여부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부모의 결정이 50.6%로서 본인이 결정할 경우인 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대도시에서는 본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61.3%로 농촌의 38.7%보다 높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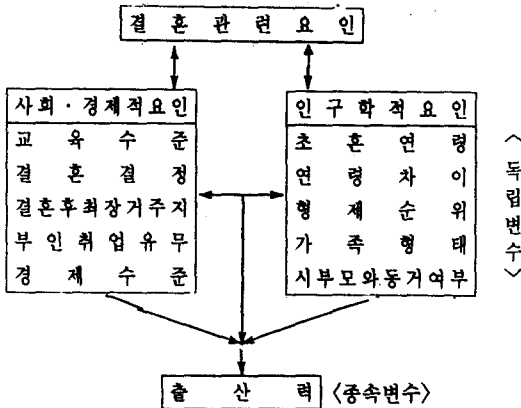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모형

분석에 이용된 통계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분포를 지역별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둘째, 출산력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이 각각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셋째, 결혼관련변수가 출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표 2. 응답부인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특성 : % (N)

특성	지역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촌
전 체	100.0(2,824)	100.0(1,293)	100.0(679)	100.0(852)
교육정도				
국졸미만	18.7(528)	9.2(119)	17.7(120)	34.0(289)
국 졸	28.4(803)	22.7(294)	27.2(185)	38.0(324)
중 졸	20.5(580)	24.7(319)	21.8(148)	13.3(113)
고졸이상	32.3(913)	43.4(561)	33.2(226)	14.7(126)
평균(년)	9.3	10.0	9.3	7.8
결혼결정				
부 모	50.6(14.8)	38.7(498)	49.5(332)	69.6(588)
본 인	49.4(1,384)	61.3(787)	50.5(339)	30.4(257)
결혼후 최장거주지				
대 도시	41.6(1,174)	75.1(971)	18.8(128)	8.8(75)
중소도시	18.4(512)	7.3(92)	53.7(357)	7.4(63)
농 촌	34.8(899)	14.0(173)	23.7(151)	80.6(575)
부인취업상태				
유	45.0(1,270)	34.2(442)	42.6(289)	63.2(538)
무	55.0(1,554)	65.8(851)	57.4(390)	36.8(313)
문화지수에 의한 경제수준(개)				
0~2	11.8(334)	7.8(101)	9.5(64)	19.8(169)
3~5	70.8(1,998)	70.6(913)	70.4(478)	71.2(607)
6~8	17.4(492)	21.6(279)	20.1(137)	8.9(76)
평균(개)	5.0	5.3	5.2	4.4

농촌은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69.6%로 본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30.4%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부인의 결혼후 최장거주지는 전국적으로는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촌에 거주한 경우 34.8%, 그 다음이 중소도시에 거주한 경우인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현황은 전국적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은 부인이 55.0%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부인인 45.0%보다 다소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 부인이 65.8%, 취업을 하고 있는 부인은 34.2%, 그리고 농촌지역은 취업을 하지 않은 부인이 36.8%, 취업을 하고 있는 부인이 63.2%로 나타났다. 즉, 농촌보다는 대도시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부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지수에 의한 경제수준은 전국적으로는 문화용품을 3~5개 보유한 가정이 70.8%로 가장 많았고, 지역

별로는 3~5개 보유한 가정이 대도시 70.6%, 중소도시 70.4%, 농촌 71.2%로 거의 비슷한 현황이었고, 6~8개 보유한 가정도 대도시 21.6%, 중소도시 20.1%로 비슷한 결과였으나, 농촌은 8.9%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응답부인의 지역별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특성

응답부인의 지역별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특성은 표 3과 같다.

부인의 초혼연령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20~24세에 결혼한 사람이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19세가 32.5%로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20~24세에 결혼한 사람이 각각 54.8%, 51.6%로 가장 많았고 농촌의 경우 15~19세에 결혼한 부인이 46.7%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3. 응답부인의 지역별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특성 : % (N)

특성	지역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촌
전 계		100.0(2824)	100.0(1293)	100.0(679)	100.0(852)
초혼연령(세)					
15~19		32.5(918)	23.5(304)	31.8(216)	46.7(398)
20~24		50.1(1415)	54.8(709)	51.6(350)	41.8(356)
25~29		14.5(410)	19.0(245)	14.2(96)	8.1(69)
30세 이상		2.9(81)	2.7(35)	2.5(17)	3.4(29)
연령차이(세)					
0~2		29.2(826)	30.5(395)	30.2(205)	26.6(226)
3~5		35.4(999)	36.4(471)	35.3(240)	33.9(288)
6~8		17.1(482)	17.0(220)	17.7(120)	16.6(141)
9세 이상		18.3(518)	16.0(207)	16.9(115)	23.0(196)
평균(세)		4.1	4.0	4.1	4.3
남편의 형제순위					
장 남		41.5(1172)	39.7(510)	39.3(266)	46.5(396)
외 아 들		5.7(160)	4.8(62)	5.4(37)	7.2(61)
차남이하		52.7(1482)	55.5(714)	55.3(374)	46.3(394)
가족형태					
1 세대		16.2(459)	15.8(204)	15.8(108)	17.3(147)
2 세대		62.5(1766)	68.0(879)	63.7(433)	53.4(455)
3세대 이상		21.2(599)	16.3(210)	20.5(139)	29.3(250)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 거		47.8(1349)	39.3(507)	42.7(290)	64.8(552)
비 동 거		52.2(1472)	60.7(783)	57.3(389)	35.2(300)

부부간의 결혼연령차이는 전국적으로는 3~5세인 사람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모두 3~5세의 차이를 보이는 부인이 가장 많았으며 농촌의 경우 9세이상의 연령차이에 응답한 부인이 23.0%나 되었다.

남편의 형제순위는 전국적으로 차남이하가 52.7%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대도시(55.5%), 중소도시(55.3%)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장남인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식중심의 2세대 가족의 비율이 대도시 68.0%, 중소도시 63.7%, 농촌 53.4%로 세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세대 가족으로 각각 16.3%, 20.5%, 29.3%를 나타냈고 1세대 가족은 각각 15.8%, 15.8%, 17.3%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동거(52.2%) 보다 적었으나 농촌의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64.8%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도시에서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사람이 60.7%로 나타나 동거가족 보다 많았다.

3.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인의 결혼연령과 남편의 결혼연령($r=0.5753$, $p<0.001$), 부인의 교육정도과 낮은 출산력($r=-0.5751$, $p<0.001$), 부인의 교육정도과 본인의 결혼결정($r=0.5592$, $p<0.001$)이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부인의 교육정도과 부인의 초혼연령

표 4. 재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남편교육 정도	남편교육 정도	결혼결정 정도	최장 거주지; 대도시	최장 거주지; 중소도시	최장 거주지; 농촌	부인취업 유무	경제수준	부인초혼 연령	나이차이	부인장녀 외팔	남편장남 외아들	남편 가죽형태	시부모와 동거여부
남편교육정도	.3698***													
결혼결정	.5592***	.1892***												
최장거주지; 대도시	.3921***	.1658***	.3454***											
최장거주지; 중소도시	.0618*	.0522**	.0447**	.4070***										
최장거주지; 농촌	-.0435*	-.0464**	-.0285	-.4534***	-.1000***									
부인취업유무	-.2249***	-.2073***	-.1249***	-.1413***	-.0131	.0038								
경제수준	.3372***	.1656***	.1756***	.1649***	.0116	-.0090	-.1416***							
부인초혼연령	.4599***	.1411***	.3802***	.2767***	.0116	-.0031	-.0781***	.1262***						
남편초혼연령	.2259***	.0526**	.2299***	.1909***	.0114	-.0024	-.0405*	.0276	.5753***					
나이차이	-.1697***	-.1698***	-.0699***	-.0218	-.0179	.0194	.0526**	-.0611**	-.1715***	.4014***				
부인장녀. 외팔	-.1160***	-.0109	-.0832***	-.0263	-.0365*	.0396*	.0182	-.0529**	-.0855	-.0828***	-.0173***			
남편장남	-.0356*	.0010	-.0537*	-.0564**	-.0137	.0120	.0358**	-.0041	-.0023	-.0450**	-.0233	-.0173***		
남편외아들	-.1168***	.0205	-.0807***	-.0665***	.0077	-.0143	.0539**	-.0416*	-.0829	-.0357*	-.0207	-.0021	-.2074***	
가죽형태	-.0554***	-.1689***	-.0887***	-.0924***	-.0144	.0099	-.0462**	.1599***	-.1108***	-.1226***	.0056***	.0160	.1228***	.0074
시부모와 동거여부	-.2335***	-.1116***	-.2680***	-.2824***	-.0429*	.0302	-.1353***	-.0439*	-.2205***	-.2371***	.0347*	.0179	.2828***	.0563*
출산력	-.5751***	-.2753***	-.5378***	-.3562***	-.0485***	.0365*	-.1820***	-.1268***	-.4597***	-.2897***	-.1000***	.0583**	.0675***	.10653***

*** P<0.001

** P<0.01

* P<0.05

($r=0.4599$, $p<0.001$), 부인의 초혼연령과 낮은 출산력 ($r=-0.4597$, $p<0.001$), 남편의 초혼연령과 부부의 나이차이($r=0.4014$, $p<0.001$)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최장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회·경제적 요인 중 출산력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부인의 교육정도($r=0.5751$)였으며 다음은 결혼결정($r=-0.5378$), 최장거주지가 대도시인 경우($r=-0.3562$)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출산력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부인의 초혼연령($r=-0.4597$)이었으며 다음은 남편의 초혼연령($r=-0.2897$)이었다.

4. 출산력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출산력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교육정도에 따른 출산력의 변동이었으며, 특히, 남편의 교육정도 보다는 부인의 교육정도가 출산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부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초혼연령이 높아지므로 부인의 생물학적 가임능력이 줄어들고, 자식이 곧 재산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함에 따라 출산력을 낮추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이는 Calton(1975)¹⁰, 공 외(1983)¹¹, 김(1990)⁹.

표 5. 출산력과 결혼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b ^{a)}	B ^{b)}	t
교육정도 :			
부 인	-.610988	-.368404	-16.180***
남 편	-.111073	-.067911	-3.352**
결혼결정을 본인이 한 경우	-.997481	-.279380	-14.856***
부인이 취업한 경우	.128433	.035714	2.192*
경제수준	.303657	.089813	5.447***
결혼후 최장거주지 :	-.558877	-.157060	-7.900***
대도시			
농 촌	.385288	.086388	4.709***
Adj-R ^{2c)} = .45769, F=274.65890***			

a) 회귀계수 b) 표준회귀계수 c) 수정중다결정계수

Birdsall(1977)¹²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결혼결정을 부모가 했는가, 아니면 본인이 했는가에 따라라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avis(1955)¹³와 Nag(1967)¹⁴가 주장한 부모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이 클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부인의 취업유무와 가정의 경제수준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001$). 즉, 부인이 취업할수록 그리고 그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출산력이 높았으며, 이는 Leff(1969)¹⁵의 자녀가 많아서 생계보조의 수단으로 취업을 했다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이론과 Becker(1960)¹⁶의 취업을 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되어 굳이 자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과 유사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조(1977)¹⁷가 연구한 부인의 취업이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결혼후 최장거주지의 경우 부인이 대도시에 거주할 수록 출산력이 낮게 나타났으며($p<0.001$), 농촌에 거주하는 부인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도시화가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Holmes(1976)¹⁸, Ro(1976)¹⁹, 공외(1983)¹¹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결혼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출산력을 46% 정도(Adj-R²=0.45769)를 설명하여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5. 출산력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출산력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또한 남편의 초혼연령도 높을수록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초혼연령은 인구학적 요인 중 출산력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는 이, 한(1978)²⁰, 김(1980)²¹, 최(1989)²², 김(1990)⁹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결혼연령차이가 많을 수록 출산력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출산력과 결혼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b	B	t
초혼연령 :			
부인	-.783633	-.322046	-12.549***
남편	-.229941	-.095561	-3.498**
연령차이	.176780	.089960	3.948**
부인이 장녀 또는 외동딸인 경우	.071886	.020010	1.135
남편이 장남일 경우	.116620	.032336	1.725
남편이 외아들일 경우	.619867	.073106	4.067***
가족형태	.598058	.174373	9.263***
시부모와 동거할 경우	.535573	.150203	7.698***
Adj-R ² = .30444, F = 125.19443***			

($p < 0.001$).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초혼연령에 비해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가임기간이 길어져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의 형제순위와 출산력과의 관계는 부인이 장녀이거나 외딸인 경우($p > 0.05$), 남편이 장남일 경우($p > 0.05$)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편이 외아들인 경우에는 출산력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01$), 이는 전통적 가치관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남아선호사상과 부모의 영향력이 출산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형태 및 시부모와의 동거도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 < 0.001$). 1세대에서 2, 3세대로 가족형태가 커질수록 출산력 증가에 영향을 주고, 시부모와 동거할 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이 부모의 통제력이 강하고, 부모와 동거할수록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Davis(1955)¹³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나 핵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부의 출산력이 높다고 발표한 Nag(1967)¹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결혼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출산력을 30.4% (Adj-R² = 0.304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출산력과 제변수들과의 관계

출산력과 제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부인의 교육정도가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부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출

표 7. 출산력과 결혼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

	b	B	t	Adj-R ^{2d)}
부인교육정도	-.436876	-.263421	-11.683***	.36609
결혼결정을 본인이 한 경우	-.850744	-.238281	-13.227***	.43280
부인초혼연령	-.398202	-.163647	-8.422***	.47354
가족형태	.428118	.124824	7.719***	.49193
남편교육정도	-.155604	-.095138	-4.889***	.49765
시부모와 동거할 경우	.126651	.035520	2.086*	.50193
경제상태	.217995	.064477	4.101***	.50492
결혼후 최장거주지 : 대도시	.276605	-.097650	-5.009***	.51066
결혼후 최장거주지 : 농촌	.276605	.062019	3.534***	.51066
남편초혼연령	-.120511	-.050083	-2.784**	.51214
부인이 취업한 경우	.134694	.037456	2.417*	.51330
남편이 외아들일 경우	.348797	.041136	2.731**	.51429
남편이 장남일 경우	.113389	.031440	2.010*	.51494

F = 186.37141***

d) 누적값

산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R^2=0.36609$, $p<0.001$).

다음은 본인의 결혼결정, 부인의 초혼연령, 가족형태, 남편의 교육정도의 순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결혼을 결정할수록 출산력은 저하되며($Adj-R^2=0.06671$, $p<0.001$), 부인이 결혼을 늦게 할수록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Adj-R^2=0.04074$, $p<0.001$). 또한 가족형태가 적을수록($Adj-R^2=0.01839$, $p<0.001$), 그리고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관련 변수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1989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가족기능연구조사를 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혼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인의 교육정도는 평균 9.3년이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0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촌이 7.8년으로 가장 짧았다. 부인의 초혼연령은 대도시(22.1세)가 중소도시(21.4세), 농촌(20.4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의 연령차이는 평균 4.1세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2. 결혼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부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본인이 결혼을 결정할수록 출산력이 낮게 나타났다($p<0.001$).

3. 결혼의 인구학적 요인 중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핵가족을 형성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을수록 출산력이 낮게 나타났다($p<0.001$).

4. 결혼의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출산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부인의 교육정도, 결혼결정, 부인의 초혼연령, 가족형태, 남편의 교육정도로 나타났으며($p<0.001$), 변수 전체의 설명력은 약 51%였다($Adj-R^2=0.51494$).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혼관련변수로 부인의 교육정도, 결혼결정, 부인의 초혼연령, 가족형태, 남편의 교육정도가 선정되었으며 설명력이 높았으므로

주요 결혼관련변수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심도깊은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한남계(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2. T. H. Kwon(1977),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 1925~1966",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3. 유영주(1988),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4. 조남훈(1985),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5. 장영식, 김승권(1989), "출산력과 관련된 제변수의 고찰",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가족계획사업방향, 한국인구보건연구원.
6. 보건사회부(1991), 가족보건사업계획, 보건사회부.
7. 김초강(1987), 모자보건·가족계획, 수문사.
8. 김두현(1982), 현대의 가족, 을유문고.
9. 김유경(1990), "결혼률 및 초혼연령의 변동과 전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R. O. Carleton(1975), "Education and Fertility", Education and Population edited by Musham, H. V., IUSSP.
11. 공세권 외(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2. N. Birdsall(1977), "Analytical Approaches to the Relationship of Population Growth and Develop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
13. K. Davis(1955), "Institutional Patterns Favoring High Fertility in Underdeveloped Areas", Engenics Quarterly.
14. M. Nag(1967), "Family Type and Fertility", World Population Conference 1965 II, New York, United Nations.
15. N. Leff(1969), "Dependency Rates and Savings R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4, December.
16. Gary S. Becker(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A Conference of the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7. 조남훈 외 3인(1977),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분석, 가족계획 연구원.
18. P. N. Holmes, Jr.(1976), "Introduction", in the dynamics of Migration : Internal Migration and Fertility, Occasional Monograph Series, Vol. 1, No. 5, The Smithsonian Institute.
19. K. K. Ro(1972), "Migration and Fertility in Korea", in The Dynamics of Migration : Internal Migration

and Fertility.

20. 이홍탁, 한대우(1978), 초혼연령과 출산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21. 김모임(1980), 결혼연령의 상관요인과 이의 인구조절정책으로써의 의의,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특별분석 2.
22. 최순(1983), 한국인의 초혼연령패턴의 변동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Vol. 6, No. 1.

1990. 1월 인문 가족학연구소
가족연구회 연구보고서

〈Abstract〉

A Regression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arriage Variables and Fertility

Sung-Hye Kim, Cho-Ka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ortant marriage variables influencing fertility. The data on which this study is based was selected from the survey data which was nation-widely collected from 2,824 married women in 1989 as the Korean.

Family Function Study perform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methods such as Cross Tabulation,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the data analysis was processed by SP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are differences in fertility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of a married woman is the lower the fertility level. And if the decision of marriage was made by herself, the fertility level is significantly low. As the duration of living in a large city is longer and the educational level of her husband is higher, the fertility level is low.
2. There are differences in fertilit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 As the first marriage age of her and her husband, the fertility level was low. And when a couple doesn't live with the husband's parents and the size of a family is small, the fertility level is low.
3.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fertility were analyzed by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shows that as the educational level of a married woman is higher, she herself decides the marriage, the first marriage level of her is higher, the size of a family is small, her husband is higher, the fertility level is low.